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 구술채록 사업

양경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업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사료관 구술채록사업이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사료관의 민주화운동 관련 일반사료수집사업과 함께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술채록사업은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인사들의 삶과 활동,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있다.

구술채록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부족과 한계를 극복하고 유형사료로는 설명될 수 없는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전체적인 상의 복원, 문서사료의 유실과 왜곡으로 인한 민주화운동 역사의 공백과 오류를 바로 잡아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민주화운동 역사의 정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구술채록사업 1년차인 2002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 중 주로 연세가 많아 구술이 시급한 민주화운동 각 분야의 원로들, 병환자 등을 중심으로 26과제 46명의 구술을 받았고, 2003년 역시 구술이 시급한 고령자와 병환자, 4·19를 중심으로 한 5, 6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인사들과 부문운동 중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인 농민·빈민운동 초기를 중심으로 36과제 90여명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3차년도인 올해에는 전년도에 중심 주제였던 4·19 및 5, 60년대를 보완, 심화하는 구술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민주화운동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과 사건, 부문 및 지역운동의 증언을 채록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그 소중함과 한계

사료관 사료수집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역사정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곳곳에 흩어진 사료들이 수집되어 사료수집사업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40만여 권을 선회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직접 헌신하신 분들과 단체들 그리고 여타의 경로로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지켜내었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문건사료, 박물관사료, 시청각 사료 등 각종 형태의 유형사료들을 기꺼이 기증해주신 덕분이다.

민주화운동 사료의 생산과 보존이 어려웠던 험난한 역사를 비추어볼 때 사업회 사료관에 수집된 민주화운동 관련 유형사료는 현재 수집 가능한 사료의 대강은 갖추었다 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집된 민주화운동 관련 유형사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기에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웠고 그나마 생산된 사료조차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분산, 소실,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모이기 위해 수많은 감시망을 뚫어야 했고, 기록이나 작은 메모 한 장 남길 수 없이 기억에 의존해야 했으며, 성명서나 문서 한 장으로도 구속되거나 목숨까지 걸어야 했고, 사료의 보존은 커녕 파기가 더 절실히 요청되었

던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기록보다는 기억 속에, 문서나 말보다는 행동 속에 구체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나마 어렵게 생산된 한 장의 성명서,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사진, 시위용품 등의 유형사료는 민주화운동 역사의 발자취를 훑어볼 수는 있으나 전체성과 구체성을 그려내기에 너무나 단절적이고 한정적이며 사료 자체에도 시대적 조건과 민주화운동 내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은유와 의도적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유형사료들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의 치열한 논의와 투쟁과정을 살펴볼 수 없으며 배경과 흐름,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관과 상호관계, 각 운동단체의 이합집산과 변화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거나 활동한 분들의 구체적 활동과 헌신을 그려낼 수도 없다.

몇몇 특정 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판기록이나 관제언론의 보도 등에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재판기록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의 출발부터 논의과정, 실행까지가 검경의 고문과 구타에 의한 강요 속에서 악의적인 조작과 왜곡의 산물이며, 조직과 동료 보호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산물임과 관제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민주화운동 역사의 왜곡과 공백, 유형사료의 부족과 명확한 한계. 바로 이것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역사정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구술채록사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우선적인 이유이다.

문서사료 객관성, 구술사료의 주관성?

최근 2~3년 사이에 학계와 운동·사회단체 등에서 구술채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며 구술채록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문헌사료의 부족과 한계 극복, 왜곡되고 숨겨진 역사의 발굴, 구체적 경험의 진술 등 문서로 접근하기 힘든 측면을 밝혀내며 새롭게 조망해 주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채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구술사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구술자 개인의 입을 통해 체험담과 목격담을 녹취하여 사료화 한다는 구술의 특징으로 인해 주관성을 면할 수 없으며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문서사료에 익숙해 있던 사고에서 볼 때 당연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일 것이다. 물론 구술에는 구술자 기억의 한계로 인한 불확실성과 망각, 선택적 기억과 그 기억의 재생산, 의식적인 침묵 속에 숨겨진 함의, 부분적인 과장과 은폐와 왜곡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는 어떤 것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객관성을 보증하며 구체화시킬 것인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직접 생산되었다 하여 명백히 한계가 드러나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들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왜곡은 그대로 둔 채 공백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메울 것인가? 1차적인 증거자료로 보증을 받는다는 이유로 독재정권 하의 왜곡과 조작으로 가득 찬 재판기록이나 관제언론의 보도를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운동 과정에 직접 참여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단지 민

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스스로의 삶과 활동, 그 험난한 역정과 숨겨진 이야기, 기쁨과 아픔과 과오까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생생히 남기는 증언사료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복원하고 남길 것인가?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채록사업은 민주화운동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록보다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민주화운동 역사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가장 탁월한 사료수집방법이다. 더 나아가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은 숨겨지고 왜곡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여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현재로 생동하게 하는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이며 올바른 자리매김으로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정당한 역사평가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역사적 책무에 복무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헌신한 분들의 증언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구체화하는 일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하며 그 중요성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또한 증언자들의 고령화와 병환, 사망, 기억 감퇴 등으로 그 시급성이 더해가고 있다.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은 구술자 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학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자문, 구술자 선정 및 승낙 확인, 구술담당자 선정·교육과 협의, 수차에 걸친 구술진행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술결과물로 녹음테이프와 캡코더 테이프, 녹취 해제문, 구술공개허락서 등을 기본으로 하며 상세목록과 간단한 초록 등 여타의 구술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은 구술자, 구술담당자, 자문·조언자 등 사업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분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남기기 위한 헌신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여타의 구술사업과 구별된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재정권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자신과 동료와 조직의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망각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십 년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구술자, 올바른 역사정리를 위해 자신의 과오도 밝혀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구술자, 차마 밝히지 못했던 아픔과 왜곡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증언하는 구술자, 적은 경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에 참여함을 기뻐하며 보다 정확한 구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구술담당자, 구술자 선정과 숨겨진 사건과 감춰진 인물의 발굴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자문에 임해 주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과 학계 인사.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은 이 모든 분들의 도움과 노력, 이 모든 분들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증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과 마무리 과정 중에 사업회에서 구술자분들을 만나 조그만 감사패와 인사를 전달할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게 되니 오히려 고맙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주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 바쳐야지.”

수십 년 세월을 민주화운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헌신하고 그 고난의 기억마저 증언으로 남겨주신 그 분들은 청년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형형한 눈빛으로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와 덕담을 건네주신다.

민주화운동의 삶과 활동, 그 경험과 기억을 역사화 하는 일.

왜곡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

감추어진 역사를 발굴하는 일.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를 정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의 과제이다.